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와 미디어 실천

이상길*

(연세대 영상대학원 조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보여준 '참여적 지식인'으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재조명하고 평가해보는 데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사회학적 참여'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부르디외 나름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부르디외가 프랑스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구사했던 일종의 대안미디어 전략들을 검토하였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특수한 지식인들'은 이른바 '보편적인 것'의 실현과 전파를 위해 서로 연대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집단적 지식인'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집단적 지식인'은 무엇보다도 '문화생산의 장'의 자율성을 성취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합주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생산의 장'의 자율성이야말로 '보편적인 것'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일생동안의 연구활동과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통해 이러한 논리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논의와 다양한 참여 활동에 나타난 일관성과 독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보여주는 몇 가지 논리적, 현실적 문제점들 역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았다.

주제어: 피에르 부르디외, 사회학적 참여, 미디어 실천

1. 머리말: 사회학자 부르디외, 언론인 부르디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이자 비판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러니 이 사회학의 '거장'에게 누군가 '언론인'이라는 꼬리표를 단다면, 이는 그 시도만으로도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부르디외의 사회학에

* parrhesia@yonsei.ac.kr

친숙한 사람일수록, 그 당혹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부르디외는 일생 동안 사회학을 ‘진정한 과학’의 지위에 올려놓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학자는 무엇보다도 저널리즘이 조장하는 선관념들(*prénotions*)과 인식론적으로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그는 학자 생활의 초창기에 이미 과학적 연구대상의 구성에 요구되는 인식론적 주의사항들(*vigilances épistémologiques*)을 정식화했으며(Cf. Bourdieu et al., 1968), 저널리즘이 제기하는 ‘사회문제’와 ‘사회학적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배와 불평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삼았던 그에게, 저널리즘은 기존의 상징질서와 계급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핵심 기제이자 중요한 비판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부르디외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쌓은 연구성과가 아닌, 신문기고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축적한 상징자본으로 공론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미디어 지식인’들에 대해 개인적인 공격조차 서슴지 않았다.¹⁾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학자-언론인으로서 부르디외를 논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발상이자 ‘불가능한 임무’인 것일까? 이는 그저 ‘대가’를 둘러싼 끝없는 지적 해석의 게임이 조장한 하나의 역지스런 관

1) 예컨대, 저널리즘은 “탈개인주의 사회의 도래”, “유목민의 시대”, “공교육의 위기” 등과 같이 기자들의 편견이나 무지, 몰이해로 인해 단순화되고 때로는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장된 다양한 사회문제들(*social problems*)을 생산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진정한 사회학은 저널리즘이 부과하는 그릇된 문제들과 비판적 거리를 두고, 개념적 엄밀성의 추구하고 이론적 체계화의 노력, 객관화 기술들(연구방법과 자료)의 활용을 통해 사회학적 문제들(*sociological problems*)을 구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저널리즘의 문제들과 단절하기는커녕, 그것에 부응하는 유행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면서 미디어에 출연함으로써 상징자본을 축적하는 전략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철학이나 역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들이 부르디외가 비판하는 ‘미디어 지식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은 언론계에서는 지식인으로서의 이득(박사학위나 교수직 등으로 제도화된 권위)을, 학계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이득(공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챙기면서, 의미 있는 공공토론에 필수적인 올바른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점에 불과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지식인의 실천이 결코 공적인 언론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면, 또 지금의 저널리즘 현실만이 사회 속에서 실현 가능한 유일한 언론형식이 아니라면, 부르디외는 뛰어난 사회학자였던 만큼이나 뛰어난 언론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르디외는 ‘사회학의 사회학’, 이른바 ‘성찰적 사회학’을 통해 사회학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저널리즘의 사회학’과 ‘사회학적 저널리즘’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²⁾ 따라서 부르디외에게 사회학자로서의 실천과 언론인으로서의 실천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사회학자로서 그가 프랑스 ‘저널리즘 장(champ journalistique)’의 작동양상을 분석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지식인들의 지나친 상징권력 행사로 말미암은 부정적 효과를 비판했다면, 언론인으로서 그는 프랑스 사회의 지배와 재생산 기제에 관한 ‘사회학적 진실’을 지식인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펼쳤다. 그는 더 나은 언론, 새로운 언론을 위해 잘못된 언론, 가짜 언론과 맞섰던 언론인이자, ‘미래에 올’ 비판적 언론인의 모범을 보여준 사회학자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관을 정리하고, 미디어와 관련된 실천적 개입과 비판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회학적 참여’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부르디외의 독특한 입장을 설명하고, ‘집단적 지식인’과 ‘보편적인 것의 정치’가 지니는 의미를 제시한다. 이는 그의 미디어

2) 여기서 ‘저널리즘의 사회학’이란 저널리즘에 대한 부르디외 식의 장이론적 접근을 말한다(Cf. 이상길, 2004). 한편 ‘사회학적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저널리즘이 생산하는 선관념들과 단절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며 학문의 권위만을 원광처럼 두르고 있는 ‘사회학적 에세이주의(sociological essayism)’를 비판하기 위해, 종종 ‘사회학적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용어로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회학의 학문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토론하는(이상화된) 비판적 언론활동”을 가리킨다.

어 비판과 실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부르디외가 프랑스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구사했던 일종의 대안미디어 전략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사회학자-언론인으로서 부르디외의 활동이 지니는 의미를 간단히 평가하고, 지식인의 참여에 대한 부르디외의 논의가 보여주는 몇 가지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2.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

부르디외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1995년 프랑스의 노동자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주로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명성만을 누리고 있었던 부르디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뒤를 잇는 ‘현실 참여적 좌파 지식인’으로서 프랑스 안팎에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후 그는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동료연구자들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부르디외의 그와 같은 정치활동이 반드시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만은 아니다. 프레데릭 마르텔(Cf. Martel, 1998)이 지적하듯, 그것은 부르디외의 입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일종의 “급작스런 선회”로 여겨졌다. 마르텔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오랫동안 시위에 참여하거나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의 행동을 거부했다. 그는 68년 5월 혁명 때도 소요와는 거리를 두었고, 90년대 이전까지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지지하는 어떤 실천도 한 적이 없다. 그는 또 70년대 푸코를 비롯한 ‘급진좌파’ 사상가들의 정치적, ‘과학 외적’ 개입을 평가절하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론적으로도 부르디외의 사회학은 한 사회의 단절과 변화보다는 연속성과 재생산에 주목하는 동시에, 행위자 개인의 의식보다는 몸, 의지보다는

성향, 자유보다는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고, 정치적 행동의 여지와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입장을 취했다. 더욱이 그가 추구했던 ‘성찰적 사회학’은 사회학자가 다양한 (정치적, 이론적, 예술적) 입장들의 공간 자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관점을 확보하는 데 그 핵심이 있었다. 부르디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과학은 지배적 분류체계의 유지 혹은 전복을 위한 투쟁에서 특정한 편을 들지 않으며, 그 투쟁을 대상으로 삼는다. (...) 즉 과학은 가치판단에 가치판단을 맞세우지 않는다. 그것은 가치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준거가 실천과 투쟁 속에 객관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 위계질서가 바로 내기물이 되는 이 투쟁은 적대적 가치판단들 속에서 드러난다”(Bourdieu, 1975/2002, 126~127쪽). 즉 부르디외 자신이 40여 년에 걸친 사회학적 작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정통(orthodoxie)과 이단(hétérodoxie)이 표면적인 대립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독사(doxa)’, ‘집단적 신념’, 혹은 ‘사회적 무의식’의 분석과 폭로에 있었다. 그 과업을 위해 부르디외는 사회학자의 ‘관점’을 낳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기성찰을 끝까지 밀어붙이고자 했으며, 과학 장의 작동기제에 대한 논의 속에서 그러한 관점의 초월적, 보편적 성격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이들이 90년대 부르디외의 현실 참여로부터 ‘전기’ 부르디외와 ‘후기’ 부르디외 사이의 단절, 혹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불일치를 보았다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특히 비판자들은 그가 말년에 왜 갑자기 각종 사회운동에 개입하면서 프랑스의 전통적 지식인상을 구현하게 되었는지, 그의 사회학이 띠고 있는 구조주의적, 결정론적, 과학주의적 색채와 개인적인 정치활동이 어떤 식으로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거기에는 물론 무지로 인한 오해 역시 적잖이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가 이론적, 실천적 바탕 없이 이루어진, ‘난데없는 해프닝’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정치적 발언과 입장표명, 다양한 학문외적 활동, 그리고 지식인과 현실 참여에 관한 텍스트들을 정리한 저작인 『개입, 1961~2001. 사회과학과 정치적 행동』이 사후에 발

간되면서 뚜렷해졌다(Cf. Bourdieu, 2002a).³⁾ 하지만 현실 참여에 대한 부르디외의 입장을 단순히 ‘돌변’과 ‘전환’의 시각에서 논하는 태도가 부당한 만큼이나, ‘일관성’과 ‘정합성’의 시각에서만 접근하려는 시도(Cf. Bouveresse, 2003; Poupeau & Discepolo, 2004; Wacquant, 2004) 또한 부르디외가 일찍이 비판한 바 있는 “전기적 환상(illusion bibliographique)”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예리한 언급처럼, 한 개인의 삶은 어떤 주관적 의도나 기획의 통일적 표현으로서 일관되게 방향 지어진 총체가 아니며, 그 연대기적 질서는 시초나 기원으로부터 목적과 존재이유의 완성에 까지 이르는 논리적 질서와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이다(Bourdieu, 1994, 81~82쪽).

6, 70년대에는 주로 ‘과학적 연구’와 ‘글쓰기’ 자체에 정치적 의미부여를 하는 데 그쳤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직을 맡게 된 80년대 이래 공공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행동 범위를 넓혀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종 시위와 집회에 직접 참여하고 발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의미심장한 진화에 대해 부르디외는 80년대 이후 자기 작업의 사회적 효과가 상당히 증가했고, 상징권력의 남용에 맞서 효율적으로 투쟁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충분한 과학자본과 상징권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Bourdieu, 1997a, 27~28쪽).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가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끌어내고자 한다면, 그러한 합리화까지 포함하는, 참여의 주관적·객관적 조건들, 또 그에 따른 부르디외의 현실 참여관과 참여형식의 변화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부르디외의 성향과 사회적 위치, 지적 기획으로부터 파생된 최소한의 정합성(의 구축과정)이

3) 이 책에는 부르디외가 쓴 성명서, 청원서, 보고서, 신문기고문, 인터뷰, 강연원고, 논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시기별·주제별 분류틀에 따라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책을 인용할 경우, 책의 발간연도와 함께 원문의 발표연도도 나란히 표기하였다. 한편 《개입》의 편집자들은 각 부마다 부르디외의 참여활동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간략한 서문을 달아놓았는데, 그것들은 독립된 논문의 형태로 종합되어 있다(Cf. Poupeau & Discepolo, 2004).

고려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달리 말하면, 그의 현실 개입이 보여주는 ‘연속성 속의 변화’, 또는 ‘변화 속의 연속성’이 사회학적 이해의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에서는 다만 부르디외가 오랜 기간 자신의 사회학적 참여를 통해 보여준 입지의 일관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참여의 이론적 원리를 확인해두고자 한다.

1) 입지의 일관성

우선 부르디외의 입장 취하기가 언제나 ‘이단’과 ‘비주류’를 지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는 지식인들 사이에 공산당 입당이 유행처럼 번져있었던 1951년, 자크 데리다 등과 더불어 에콜 노르말 안에 스탈린주의의 득세를 경계하는 ‘자유수호 위원회(Comité pour la défense des libertés)’를 결성했는가 하면,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198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계 엘리트들의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무소속 후보였던 코미디언 콜뤼쉬(Coluche)를 공개 지지했다.⁴⁾ 한편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지원 아래 우파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제출되었던 1995년, 부르디외는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Cf. Duval et al., 1998).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적지 않게 발견되는 이러한 예들은 부르디외의 ‘점진적인 급진화’를 드러낸다기보다는, 때로는 전략적 계산에 의해, 또 때로는 무의식적 ‘반골기질’에 따라 이루어졌을 입장선택의 ‘반시대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부르디외는 1996년 철학자 자크 부브레스와 나눈 대담에서 70년대 이후 급진적, 전복적, 혁명적이었던 프랑스 사회의 독사가 근래에는 억압적이며 신자유주의적인 독사로 역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Bouveresse, 2003, 59쪽). 이러한 관점에서 보

4) 부르디외의 전기적 사실들과 관련해서는 그의 몇몇 책과 인터뷰(Bourdieu, 1987; 1997a; 2002b; 2004), 그리고 사회학자 로익 와강의 부르디외 추모 논문(Wacquant, 2002)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별도의 전거 없이 인용하였다.

자면, 그의 정치적 개입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독사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이단과 위기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독사를 객관화시켜 분석하고 나아가 혁신하려 했던 그의 지적 기획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부르디외의 현실 참여에 나타나는 또다른 일관된 성격으로 그것이 과학적 저술활동과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르디외의 정치적 텍스트들은, 『개입, 1961~2001. 사회과학과 정치적 행동』의 편집자들이 제시한 분류들에 따르면, ‘알제리 문제’, ‘교육과 문화 민주화의 허구성’,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와 문화생산의 상업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해악’ 등의 주제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는 그의 주요 연구 작업의 주제와 그대로 부합하는 한편, 195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그가 엄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바탕 위에서만 공적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각종 논문과 저작, 혹은 동료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전시킨 사회학적 사유를 인터뷰나 강연, 신문잡지의 기고문과 같은 텍스트 속에서 작동시켰으며, 때로는 이론적 직관에 기초한 시사문제의 분석을 학술적인 형식의 논문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의 참여와 연구 작업은 그 주제와 전개과정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일관되게 함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자 파트릭 샹파뉴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적 이상은 일종의 순수한 이론적 모델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학은 그 모델로부터의 거리를 보여주는 방법, 달리 말해 이상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인 장애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Champagne, 2004, 61쪽)으로 이용된다. 그의 사회학적 참여는 기본적으로 형식상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부르디외의 연구 저작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입의 방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교육체계나 문화적 불평등에 관한 부르디외 초기 저작들이 비

판적인 의미를 띠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념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또 정치와 미디어의 폐쇄성을 분석한 그의 후기 저작들에는 ‘대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대표성’ 그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짙은 우려가 깔려있다. 부르디외가 프랑스 사회의 특정한 법률이나 제도가 지향하는 명분(문화와 교육의 민주화, 민주주의적 대표성)과 실제 현실 사이의 심각한 간극을 규명하고 폭로했다 해서, 그가 그러한 명분 자체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만 간주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그 명분은 아직껏 실현되지 못한, 그러므로 장차 실현시켜야 할 하나의 ‘이상’이기도 했다. 부르디외는 교육이나 문화 민주화의 정책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즉 교육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적 실천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시각이다. 또 부르디외가 국가의 ‘보편 지향적’, ‘공익 추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역사적 투쟁을 통해 쟁취된 성과들 —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장제도 등 — 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국가의 장학금으로 고등교육까지 받고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의 개인적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원리 - ‘집단적 지식인’ 혹은 ‘보편적인 것의 조합주의’를 위하여

부르디외의 현실 참여는 이처럼 이단적, 비주류적 입장의 선택, 과학적 연구와 정치적 개입을 결합시키려는 의지,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신념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속성은 사회학적 참여의 원칙과 새로운 지식인상에 대한 그의 이론적 정교화 작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이론과 실천의 발전이 그의 지적 삶 속에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참여에 관한 그의 이론

은 어떤 원리들로 정리될 수 있을까?

먼저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기획이 지적 독사에 고유한 다양한 이분법들 — 개인과 사회, 의식과 무의식, 주체와 구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구조주의와 현상학, 이론주의와 경험주의 등등 — 의 지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참여와 지식인에 대한 논의 또한 기존의 이분법들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지식인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들, ‘순수’ 지식인과 ‘참여’ 지식인, ‘보편적 지식인(intellectuel universel)’과 ‘특수한 지식인(intellectuel spécifique)’⁵⁾, 학자적 전문성(scholarship)과 정치적 참여(commitment)의 대

5) ‘보편적 지식인’ 혹은 ‘총체적 지식인(intellectuel total)’과 ‘특수한 지식인’ 사이의 대립은 프랑스의 독특한 지식인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푸코가 정초한 것이다. 19세기 말, 드레퓌스 사건 때, 작가 에밀 졸라를 비롯한 드레퓌스 옹호자들로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지식인’ 전통은 이후 참여문학을 내세운 사르트르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룬다. 사르트르에 의해 대표되는 ‘보편적 지식인’은 ‘진실과 정의의 사도’이자 ‘모든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이상적인 진실과 정의의 ‘보편성’, 그리고 ‘자유로운 의식’을 가진 지식인의 특수한 존재론적 사명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푸코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프랑스 사회를 지배했던 이러한 지식인상에 대해 ‘특수한 지식인’의 개념을 대립시킨다. 이러한 대립은 그가 진실과 정의의 보편성, 자유롭고 순수한 지식인상을 역사화의 작업을 통해 급진적으로 상대화시켰던 것에도 관련된다. 푸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했다고 말하는 ‘특수한 지식인’은, 그의 논의를 정리해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우선 ‘특수한 지식인’은 거대한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한다. 그런데 그의 국지적이고도 특수한 투쟁은 단순히 전문적이거나 부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 효과와 함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은 더 이상 ‘보편적 가치의 담지자’가 아니다. 그보다 한 사회 내의 ‘진실체제’가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작용 속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정치투쟁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식, 전문성, 지식에 대한 관계를 이용하는 인물”(Foucault, 1977/1994, p.156)이다. 그는 특정한 분야나 지점에서 작업하면서, 특수한 문제들을 놓고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투쟁을 벌이게 된다. 사회 전체의 ‘진실의 정치학’과 관련해 지식인의 위치는 일반적인 중요성을 띠다. 그가 생산하는 “진실한 담론(discours vrai)에 고유한 효과”가 지식과 미시권력 사이의 특수한 관계, 진실의 위상과 그 정치경제적 역할과의 관계를 둘러싼 투쟁에 자연스럽게 개입하기 때문이다(Foucault, 1977/1994, pp.155~160; Cf.

렵이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며, 지식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사회적 조건과 결정요인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르디외에게 있어 지식인은 이중적인 차원에서 정의된다. 그는 계급적 차원에서 보자면, “지배계급의 피지배 분파”(Bourdieu, 1987, 172쪽)로서 문화생산자라는 속성을 지닌다. (고등)교육자, 예술가, 상급 기술직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문화생산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내에서 자본총량(경제 자본,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의 복합체)이 많은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지배계급에 속하지만, 보유자본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경제자본에 비해 문화자본의 비중이 더 높으며, 시장과 같은 아주 일반적인 기제에 의해 (지배계급 내의 지배분파인) 구 부르주아지나 신흥 부르주아지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배받는다는 점에서 피지배분파에 속한다. 그런데 문화생산자 집단은 사회 내 상징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서 상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모든 문화생산자가 곧 지식인은 아니다. 지식인은 계급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그가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서도 정의된다. 즉 자신이 속한 문화생산의 장에서 고유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투쟁하면서 상징자본을 축적하고, 그 장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권력에 대항하며, 나아가 스스로 장에서 획득한 상징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 전체에 보편적인 가치를 전파시켜나가는 문화생산자만이 지식인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보기에, 지식인 집단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사회적 위치는 지식인이 역설적 존재이며, 양면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즉 지식인은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종교적 권력 등에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세계 안에서, 그것이 존재하는 한에서, 그 세계의 규칙을 준수하

Foucault, 1972/1994). ‘특수한 지식인’에 대한 푸코의 이와 같은 개념화는 한편으로는 프랑스에서 정치적 발언을 주도해왔던 ‘대작가’와 ‘에세이스트’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투쟁의 현실을 추상화된 계급과 역사로 환원시켜버렸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푸코가 특수한 지식인의 예로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정신의학자 등을 든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자율적인 세계에서 축적한 특수한 권위(무사무욕, 전문적 능력, 보편주의 등등)를 가지고서 정치적 투쟁에 개입한다는 것이다(Bourdieu, 1992/2002a, 257~266쪽). 지식인은 “‘국가이성raison d’Etat’의 완벽한 반명제인 ‘순수성의 정치학’”(Bourdieu, 1992/2002a, 260쪽)을 구사한다. 이는 지식인들이 그들의 제도적 자율성과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증대시킴으로써만, 정치적 행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해, “참여적 지식, 즉 정치적 참여를 동반한 학자적 전문성(scholarship with commitment)을 생산할 수 있으려면, 학자적 전문성의 기준들에 따라 작업하는 자율적 학자가 되어야만 한다”(Bourdieu, 2001/2002a, 465쪽).

따라서 부르디외에게 있어, 사회학적 참여는 우선 ‘과학의 정치학’을 기반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학이 제공하는 사회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책임 있는 비판적 사유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참여는 “시사문제를, 가능한 한, 과학적 지식의 통상적인 요구에 복속시키려는”(Bourdieu, 1986, 2쪽) 원칙 아래 사회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⁶⁾ 그런데 부르디외의 ‘구조 결정론적’ 사회학이 알려주는 사회 법칙(loi sociale)은 행위자의 정치적 행동을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무력화하는 효과만을 낳지 않을까?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서 ‘사회학의 기획’과 행위자에 의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6) 행위주체의 상징이윤 축적에 주로 봉사할 뿐, 정작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이해는 방해하기 일쑤인 지식인들의 각종 정치 활동에 부르디외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논평, 사실, 선언문, 시위, 청원서, 대정부질문, 성명 등은 상징적인 한 방 먹이기라 할 수 있다. 그것의 목표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기보다는, 지각과 평가를 방향 지을 수 있도록 사실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것은 위대한 지식인들의 예언자적 개입처럼, 존재하는 것보다는 ‘사유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기를 열망한다”(Bourdieu, 1986, p.2) 여기서 부르디외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학’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당위론적 의견’을 설파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를 대립시킨다.

의 기획'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부르디외는 그의 사회학이 “욕망을 실제로 착각하는 유토피아주의와 거리를 두는 만큼이나, 물신화된 법칙들을 냉정하게 일깨우며 즐거워하는 사회학주의와도 거리를 둔다”(Bourdieu, 1975/2002a, 121쪽)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말하는 “사회 법칙이 사물의 본질 속에 영구히 새겨진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것, 과학적 법칙은 행위를 처방하는 규범이나 명령하는 규칙이 아니며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유효하다고 인정된 규칙성(régularité)이라는 것, 따라서 이 (통계적) 규칙성은 정언명령처럼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복종해야 할 숙명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Bourdieu, 1992/2002a, 243쪽)을 강조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사회학적 규칙성에 대한 인식은 그것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의 성공조건이다. 어떤 현상의 개연성을 안다면, 그것의 실현을 저지하려는 행동의 성공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그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유토피아주의” 혹은 “과학적으로 정초된 유토피아주의”가 나온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 실제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개연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이용할 수 있다”(Bourdieu, 1980, p. 78; Cf. Bourdieu, 1992a, 169~170쪽) 태도이다.

사회세계에 대한 과학을 위해서는 과학적 생산을 위한 사회적 조건의 확보, 즉 사회과학 장(champ des sciences sociales)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이성의 진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보자면, 부르디외가 구상하는 지식인상과 사회학적 참여의 방식은 푸코가 말한 ‘특수한 지식인’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⁷⁾ 이는 가장 미시적이고 비가시적

7) 실제로 부르디외는(에밀 줄라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축적한 권위를 정치적 힘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자적 전문성과 현실참여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고, 프랑스의 지식인 전통을 복원하는 데 이바지한 대표적인 인물로 푸코를 든다. 또 푸코와 부르디외의 지식인관이 지닌 유사성에 관련해서는 부르디외 자신에 의해서나 다른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Bourdieu, 2001/2002, pp.470~475; Mauger, 1995). 하지만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

인 수준(몸, 인지구조, 상징체계, 지식)에까지 작용하는 권력효과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성과 도덕, 보편의 담론 또한 급진적으로 역사화, 맥락화시켜 사고하려 했던 두 학자의 공통된 지적 기획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부르디외는 푸코의 급진적 역사주의에 동조하면서도, 그러한 시각이 어떻게 허무주의적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고 비판과 진보의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부르디외는 역사적, 사회학적 현실주의 위에 이성과 보편, 도덕의 기초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Cf. Bourdieu, 1994, 237~244쪽). 그에 따르면, “사실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주의가 상대주의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보편적 명제들에 대한 가치부여를 가로막는 것도 아니며, 보편적 정치학, 이성과 보편적인 것의 진정한 현실정치를 정초할 수 없도록 금하는 것도 아니다”(Bourdieu, 1993, 38쪽).

부르디외는 합리적 역사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비판과 진보의 준거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인 따라서 한시적인 보편’을 개념화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보편성을 지향하며 그러한 가치가 부여된 사유형식과 문화산물들 — 수학, 물리학, 법, 세계종교 등등 — 을 가진다는 점을 시인해야 하는 동시에, 그것들이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회세계 안에서 구성되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 사회세계란 행위자들이 보편적인 것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된 다양한 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먼저 일종의 “보편성을 띠는 인류학적 법칙”(Bourdieu, 1994, 240쪽)이 전제된다.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것에 복종하는 것, 미덕의 외양을 취하는 것, 공식적인 규칙에 따르는 것에는 상징적이며 때로는 물질적인 이윤이 있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만일 인류가 약간의 보편적인 것을 생산했다면, 그것은 보편적

다. 여기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논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권력’과 ‘주체성’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론’의 역할과 ‘계몽’의 의미에 대한 관점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특히 푸코에게 있어 ‘이론’과 ‘지식’의 구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지식인관(Cf. Gros, 1994)은 부르디외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인 것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중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보편화의 이윤’은 보편적인 것을 진보시키는 역사적 원동력의 하나다. “미덕과 보편적인 것에 대한 우선적인 인정은 소여(darum) — 칸트라면 이렇게 말했으리라 —, 즉 윤리가 정초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다. 모든 사회는, 최소한 말로는, 보편적인 것의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합의한다. (……) 보편적인 것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은, 그것이 진지한 것이든 우선적인 것이든, 진정이든 가식이든,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 소여는 절대주의적이지도 본질주의적이지도 않은 도덕의 경험적 토대를 이룬다. 이 도덕은 아주 현실주의적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보편주의적인 정치행위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으로 구성되는, 인간적 열망의 가장 약한 지점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Bourdieu, 1993, 41쪽).

달리 말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가치나 덕목, 주장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상징이윤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이라든지 평등과 같은 개념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러므로 변화가능성이 있는) 가치이며, 어떤 맥락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수용하거나 수용하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 진실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설령 역사적 특수성 아래 성립된 지식체제의 잠정적인 산물이라 해도, 그 체제 안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실로서 합의된 이상, 사람들은 그것의 수용과 인정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한 기제를 이용한, ‘보편적인 것’의 역사적 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부르디외는 문화생산의 장들, 특히 ‘과학 장(champ scientifique)’과 ‘관료제의 장(champ bureaucratique)’, 즉 근대국가의 발전을 든다. 이 장들은 보편적 가치가 최소한 말로만이라도 인정받고, 보편적 규칙을 따를 때 생겨나는 이익을 노리는 ‘보편화의 전략’과, 공식적으로 보편을 자처하는 소세계들의 구조가 서로 강화시켜주는 식의 관계로 정립된 산물이다. 부르디외는 ‘과학 장’의 역사 속에서 행위자들이 합리적이며 무사무욕한 성향

을 강화하고, 이성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Cf. Bourdieu, 1991). 마찬가지로 그는 근대국가가 다양한 형식의 자본 — 물리적 자본(군대, 경찰), 경제자본(특히 조세의 발명), 문화자본 특히 언어자본(표준어) 등 — 축적과 독점 과정을 통해 구축되면서, ‘보편적인 것’(공공서비스, 공공질서, 공익, 법 등등) 역시 독점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Cf. Bourdieu, 1994, 99~133쪽). 과학 장에서의 투쟁의 역사가 이성의 ‘역설적’ 진보를 가져왔듯이,⁸⁾ 근대국가의 다양한 자본 독점의 역사는 보편과 일반이익의 ‘역설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⁹⁾ 이 의도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
- 8) 부르디외에 따르면, 과학 장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상징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투쟁하는 상황은 이성의 진보를 가져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비판적 교정”으로 전화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뒤따른다. 경쟁하는 개인들이 공통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과학적 자원을 동원해야만 하는 식으로 지적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Bourdieu, 1991, p.20).
- 9) 부르디외에 의하면, 국가가 정세의 권리를 자임하고 합법적 강탈을 일종의 공공 서비스로서 인식시키기 위해 물리력이나 (징수된 조세를 법령화하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문화적 수단들의 축적만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인정과 정당성, 권위의 상징자본의 축적 또한 요구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양면성을 띠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집중과 통일, 보편화의 과정이었다. 즉 제각기 독자적인 화폐와 도량형, 방언 등을 가지고 세금을 걷던 지역들이 병립해 있다가, 화폐와 도량형과 언어를 통일한 하나의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은 한층 고차원적인 보편화와 합리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표준미터법의 도입은 엄청나게 많은 잠재적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화 과정은 합리성과 규칙성의 방향으로의 진보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독점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실 국가를 구축한 사람들은 국가가 집중시킨 물리력, 경제자본, 상징자본 등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진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국가와 더불어 ‘일반이해에 봉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기묘한 게임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국가는 ‘보편적인 것’을 ‘가식적으로라도’ 표방하지 않고는 상징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장으로서 구성되었으며, 이는 ‘보편적인 것’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마련한다(Cf. Bourdieu, 1993; 1994). 흥미로운 것은 이 지점에서 부르디외가 하버마스와 상당히 유사한 논법을 구사한다는 사실이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공론장이 만들어낸 자기이해(self-interpretation)가 “제한 없는 포용

보편을 역사적으로 사유하면서도, 정치적 준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며, 진보의 잣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성과 윤리, 덕목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신이나 언어 속에 본래 새겨져있는 것도 아닌, 역사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 ‘보편적인 것’이 출현한 역사적 조건들로부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치 프로그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르디외는 ‘보편적인 것의 현실정치(Realpolitik de l’universel)’의 몇 가지 실행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는다. 첫째, 마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듯 제시되는 특수성들을 역사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적 전통이나 정신구조, 사유범주 등과 같은 특수성의 역사적 조건들을 발견하기 위해 그것들을 역사화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특수주의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며, 특수주의로부터 벗어나 보편화를 지향할 수 있는 무기를 준다. 둘째, 한 사회를 그것이 표방하는 ‘공식적 수사학’,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명령’, ‘이상적 이미지’의 차원에서 끝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유, 평등, 박애, 민주주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에 대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비판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기획은 한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관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 ‘보편적인 것’(예컨대, 과학, 문학, 철학, 법 등)에 대한 접근의 조건들을 보편화하는 것이다.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화산물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 속에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편적인 것’

과 평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애초부터 부르주아 공론장의 보편주의적 담론들은 자기지시적 전제들에 기초해 있었으며”, 따라서 이질적인 집단들이 가하는 내부 비판의 수용을 통한 “자기변형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Habermas, 1992, p. 429). 보편주의적 지향성은 부르주아 공론장이 단지 남성이나 부르주아지 같은 지배세력만이 아닌, 여성이나 민중 같은 피지배세력에 의해서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때, 하버마스는 정치의 무게중심을 공론장에 둔다면, 부르디외는 국가에 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접근의 조건들을 보편화하기 위해, 감춰진 불평등의 기제와 조건들(예를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나 미학적 성향과 능력을 가지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규명하는 작업은 기본 출발점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강화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Cf. Bourdieu, 1993, 44~46쪽).

이와 같은 정치활동은, 부르디외에 따르면, 고립된 개개인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는 종종 “지식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집단적 힘은 과소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능한 다른 보편의 형식들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실현하기 위해, 그는 푸코가 말하는 의미에서 ‘특수한 지식인’들을, 학문분과와 국경을 넘어선 ‘집단적 지식인(intellectuel collectif)’ 안에 규합하고, 비판적인 사회운동과 연계해 정치, 경제, 미디어 권력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항권력으로 정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에 이해관계를 지닌 문화생산자들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장 안에서 세계에 대한 더 보편적이고, 더 진실한 표상들을 생산해내려면, 그러한 생산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에 공동으로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그람시가 제시한 바 있는, 이른바 ‘유기적 지식인(intellectuel organic)’의 신화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지식인을 비롯한 문화생산자들은 설령 조합주의의 혐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무사무욕(désintéressement)에 집단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이들만이 이

10) 그람시가 말하는 ‘유기적 지식인’은 경제적 생산에서 기본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집단들(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에 의해 창조, 발전되며, 그 집단에 동질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집단의 기능에 대한 자기인식을 제공한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Cf. 강수택, 2001, 4장). 이는 ‘유기적 지식인’이 그 형성과 활동, 기능에 있어서 계급적 이해관계와 분리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식인 고유의 영역과 이해관계를 전제하는 부르디외 식의 ‘집단적 지식인’과는 근본적으로 케를 달리한다. 하지만 그람시는 이 계급구속적인 지식인들이 항상 자신의 발생조건을 초월해 어떤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는 문화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시각과도

성과 보편적인 것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디외가 “보편적인 것의 조합주의”, “지식인의 인터내셔널”, “이성의 현실정치”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이다.¹¹⁾ “어떤 지식인들이 때때로 내세우는, 보편적인 것의 대리인으

어느 정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 11) 부르디외는 자신이 속한 장의 고유한 논리에 충실한 ‘특수한 지식인’들이 외부 권력에 대한 장의 자율성을 축적하고, 그것을 무기로 다시 ‘보편적인 것’의 진보를 위해 ‘집단적 지식인’을 구성하여 정치에 개입한 가장 모범적인 예를, 19세기 말 탄생한 최초의 지식인 집단에서 발견한다. 자신들의 통상적인 직업활동 영역을 넘어서 진리, 정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로서 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실제 집단과 더불어 최초로 출현했던 계기는 바로 드레퓌스 사건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르디외의 1992년 저작인 『예술의 규칙』은 19세기 프랑스 문학 장의 발생과 구조에 관한 연구인 동시에, 지식인의 정치적 실천과 역할에 대한 논고로도 읽힐 수 있다. 부르디외는 19세기 프랑스에서 플로베르와 그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문학생산의 장을 국가와 (외부권력 지향적인) 아카데미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서술한다. 예술가들은 자율성이 극대화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그것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발명하였으며, 정치적 요구나 경제적 이해관계, 도덕적 요청에 거리를 둔 채, 예술의 특수한 규범들 말고는 다른 판관이나 평가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술가들은 다른 동료들의 인정만을 추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하는 전문직업인이 되었던 것이다. 부르디외는 이처럼 플로베르와 동료 예술가들이 문학 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집단적이며 조합주의적인 투쟁이, 이후 문인들의 정치 문제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상징적 권위와 도덕적 지도력의 기반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바로 그러한 기반 위에서 에밀 졸라를 위시한 문인들은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현안에 개입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반동적인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었다. 사실 졸라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발언과 간섭을 통해, 장의 자율성이 극대화되기까지 문학 장에서 금기시 되었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시 끌어들이는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종의 위반 행위는 그동안 문학 장이 집단적으로 쟁취한 자율성과 그 안에서 졸라가 쌓은 충분한 상징자본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Cf. Bourdieu, 1989; 1992, pp.185~189). 문학생산 장의 자율성은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들(자유, 정의, 평등, 진실, 인권, 무사무욕 등)을 세계관으로 체화한 구성원들을 생산해낸다. 이들은 보편에

로서의 기능은 문화적, 사법적,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의 모든 장들 안에, 존재 이유이자 이상적인 규범으로서 새겨져 있다. 그것은 끝없이 위반 되거나 단순히 잊혀진다 하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효과를 행사할 수 있다”(Bourdieu, 1995/2002a, 287~288쪽).

부르디외는 자신의 지적 생애를 통해 ‘특수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지 지식인’의 구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68년 5월 혁명 때는 그가 소장직을 맡고 있었던 유럽사회학연구소(Centre de sociologie européenne)의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의 삼부회(états généraux) 조직을 위한 호소문”을 만들어 돌렸다. 1985년에 그는 미테랑 대통령의 요구로 이루어진 콜레주 드 프랑스의 공동연구 결과로서 <미래의 교육을 위한 제안(Propositions pour un enseignement de l’avenir)>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988년 말 교육부에 설치된 <교과 과정에 관한 성찰위원회(Commission de réflexion sur les contenus de l’enseignement)>를 주재하기도 했다. 1992년 3월, 그는 <고등교육과 연구에 관한 성찰집단 Association de réflexion sur les enseignements supérieurs et la recherche(ARESER)>을 발족시켰다. 학생과 지식의 진화에 적합한 대학교육과 연구의 목적 및 양식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전공분야의 연구자 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결성된 이 집단은 1997년 『위험에 빠진 대학을 위한 긴급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Cf. ARESER, 1997).

이렇듯 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프랑스 교육제도의 민주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모색했으며, 나아가 80년대 이후로는 지식인들간의 국제적 연대를 확립하고자 애썼다. 1981년 부르디외는 미셸 푸코 등과 더불어 폴란드의 솔리다리노스크 운동을 지지했으며, 1993년 6월에는 자크 데리다,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에른스트 겔너(Ernst Gellner), 위르겐 하버마스 등과 함께, <알제리 지식인들의 지원을 위한 국제위원회 Comité international de soutien aux intellectuels algériens(CISIA)>에 참여하였다.

기반하지 않은 정치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자신들이 특수한 장의 구성원으로서 내면화하고 발전시킨 원리의 수용을 정치와 사회 전체에 요구한다.

CISIA는 알제리 내전 초기부터 테러와 암살의 표적이 되었던 알제리 지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사람들에게 알제리의 전반적인 상황과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이해의 도구를 제공하였다. 1993년 7월, 부르디외는 전세계 삼백 여명의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국제작가의회Parlement international des écrivains>에 동참하였다. 작가의회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모든 유형의 주류에 맞서 문학의 자율성과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유착과 미디어를 이용한 조작을 거부하는 새로운 개입형식을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등장했다. 그것은 또 삶과 작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작가들과 구체적인 연대를 조직하였다(Cf. Bourdieu, 1994/2002a, 289~292쪽; Liber, 17호, mars 1994).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은 부르디외가 자신이 제시한 이론적 원리를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해냈는지를 보여준다.

3. 부르디외의 미디어 실천

부르디외는 “상징권력들 가운데 가장 덜 부당한 권력인 과학의 해방적 미덕”(Bourdieu, 1982, 56쪽)을 믿는다고 자인하면서,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재생산에 공모한다 하더라도, 과학과 교육이야말로 지배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수단이라고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상징적 지배(domination symbolique)와 관련해서는 그 기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 자체만으로도 비판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상징적 지배의 핵심기제인 ‘상징폭력(violence symbolique)’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도구에 대한 무지와 오인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리적 세력관계의 수준에서 서가 아니라, 의미와 인식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상징폭력이란 “오인 속에서 오인에 의해 완성되는 폭력”(Bourdieu, 1982/2002a, 173쪽)이다. 즉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무지, 무의식적인 방조가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인 것이다. 상징폭력의 행사자나 감수자가 그것이 행사되고 감수된다는 사실을

모를수록, 상징폭력은 더 효과적으로 행사된다(Bourdieu, 1998, 39~48쪽). 그러므로 사회학이 그러한 지배의 사실과 효과를 기술하고, 그 ‘감춰진’ 기제를 ‘폭로’하기만 해도 상당한 비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진실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계몽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상징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그동안 “사회세계에 대한 표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힘”(Bourdieu, 1977/2002a, 103쪽)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학은 정신구조와 사회구조 사이의 즉각적인 조화를 결렬시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징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방어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학자가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공표한다고 해서, 광범위한 정치적 효과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지와 오인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진실’ — 부르디외가 말하는 ‘경제적, 상징적 차원의 지배관계 재생산’의 진실 — 은 그러한 기제를 변화시키거나 전복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피지배집단에게 널리 알려질수록 의미 있는 효과를 촉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적 성과물 역시 다른 문화산물과 동일한 유통의 법칙 아래 놓인다는 데 있다. 즉 문화적으로 박탈된 집단일수록 과학적 지식에 접촉할 가능성이 적고, 그러한 박탈의 효과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의 성과를 피지배집단에게 계몽할 수 있는 전달수단의 확보와 이용이 긴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한 사회의 상징적 지배의 핵심 기제인 교육과 미디어는 그 지배에 저항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과학적인 작업을 위해 ‘과학 장’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하듯, 그 결과의 광범위한 전파를 통한 계몽을 위해서는 특히 미디어의 대량전달능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실력 없는’ 지식인들의 상징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발견 내용을 전파하는 데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르디외가 보기에, 사회세계에 대한 담론의 생산을 둘러싸고 사회학자나 정치인들과 경쟁하는

언론인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진실의 유통을 막는 데 이해 관계를 가진다. 게다가 그들은 의심받지 않는 합의된 문제들 — 독사(doxa) — 위에서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기 일쑤이다. “경쟁과 상호의존의 망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언론인들이 낳은, 그릇된 문제들에 대한 합의는, 평소에는 잊혀져 있다가 위기의 시기에만 솟아오르는 모든 진짜 문제들을 감추는 효과를 가진다”(Bourdieu, 1991, 114쪽). 저널리즘 장의 상업화 경향은 한층 효율적인 검열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부르디외는 ‘과학 장’의 혁신을 통해 과학 생산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생산된 사회적 진실을 공중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출판전략을 펼치기에 이른다. 그에게 언론인이라는 호칭을 붙여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언론인으로서 부르디외의 미디어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1960년대 중반에 사회과학 총서, 1970년대 중반에는 사회과학 전문학술지를 각각 출범시킴으로써, 프랑스의 사회과학계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1980년대 말, 범유럽 서평지의 창간을 매개로, 유럽 차원의 지적 공론장을 일구어보고자 했던 것이 그 다음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중반, 그 자신이 직접 사회운동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출판운동과 결합시킴으로써, 공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과학장’의 자율성 증진, ‘집단적 지식인’의 구축, 그리고 부르디외의 표현대로라면, “말하기보다는 말해지는” 사람들,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되돌려주는 작업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¹²⁾ 특히 마지막 의미와 관련해,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비주류의, 이단적인 말에 약간의 힘을 주는 것이다.

12) 1971년 푸코는 들뢰즈 등과 더불어 <감옥에 관한 정보집단Groupe d'Information sur la Prison(GIP)>을 창설해, 형벌제도와 수감자들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탐구했다. 1973년에는 사르트르와 푸코 등이 주축이 되어, “민중에게 말을 되돌려준다”는 명분을 내걸고, 좌파 성향의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을 창간했다.

과학은 정의상 비주류이며 역설적이다. 그것은 일상적 토론이 실어 나르는 공통된 의견이나 신념과 단절한다. 이 비주류의 말에 약간의 사회적 힘을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전투적이라고 여기는 행동이다”(Bourdieu, 1991, 117 쪽).

1) 사회과학 총서와 전문지를 통한 개입

부르디외는 학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4년, 사뮈엘 베케트와 클로드 시몽 같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책을 주로 내고 있었던 미뉴(Minuit) 출판사에서 <공통감각Le sens commun>이라는 이름의 총서 기획을 담당하였다. 이 총서에는 크게 세 부류의 책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부르디외 자신을 비롯해, 유럽 사회학 연구소의 신진 연구자들의 저작들이 총서를 통해 발간되었다. 다음으로는 에밀 뒤르켐, 마르셀 모스, 에른스트 카시러, 미하일 바흐친 등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고전들이 새로 편집되거나 번역되었다. 끝으로, 동시대의 뛰어난 저자들, 즉 어빙 고프만, 윌리엄 라보프, 잭 구디, 리처드 호가트,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같은 저자의 책들이 총서를 통해 번역, 소개되었다. 이 총서의 특징은 그 방대하고도 현재성 있는 국제적 감각에 있었다. 이는 부르디외가 독일철학과 영미 문화인류학으로 자기 학문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나, 60년대 프랑스 사회과학의 변방성과 후진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부르디외만큼이나 외국 이론의 수용과 소화,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작업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 사회학자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Wacquant, 1993, 244쪽). <공통감각> 총서는 부르디외가 1997년 출판사를 쇠이유(Seuil)로 옮기고, <리베르Liber> 총서를 발간할 때까지 프랑스 사회과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5년 1월, 부르디외는 사회과학 전문지 <악트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사회과학에서의 연구활동>를 창간한다. 파리 인간과학 연구원(Maison des sciences de l'homme)의 당시 원장이었던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의 지원 아래 출간된 이 잡지는 부르디외의 학문적, 정치적 노선을 따라가며, 근 30년간 프랑스 사회과학계를 혁신해왔다. 《악트》는 첫 호의 발간사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실한 관념의 내생적 힘을 믿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신념의 매력과 단절하려면, 상징폭력에는 상징폭력으로 맞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학적 이성의 논쟁에 의해 쟁취된 진실들을 위해서 논쟁의 무기를 활용하여야 한다”(Bourdieu, 1975/2002a, 121쪽). 미뉴 출판사에 의해 계간으로 발행된 이 잡지는 처음부터 편집 디자이너로 만화가 장 클로드 므지에르(Jean-Claude Mezières)를 선택했다. 그것은 큰 사진과 자료, 만화 등을 과감하게 텍스트와 함께 배치하는 식으로, 디자인에 있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잡지는 논문의 형식이나 양 역시 규제하지 않고, 연구 노트에서부터 강연 원고, 연구 기획서, 책 한 권 분량의 논문 등, 스타일이나 기능에 있어 이질적인 텍스트를 함께 실으면서, 기존 학술지와 차별성 속에서 연구자의 ‘작업장’을 직접 보여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연구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 즉 고정관념이나 ‘독사’와 단절하면서 연구대상이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악트》는 학술적인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연구를 표준화하고 규범화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려는 의지 또한 내세웠다. “논증의 엄밀성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읽기 쉽게 만들려는 정언명령들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대학 강의 예법과 규범에 순응하려는 배려가 자아내는 검열, 기교, 타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Bourdieu, 1975/2002a, 120쪽).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독자공중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구조에 따라 조직된) 사진들과 분석적 텍스트에 의해” “하나의 분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Bourdieu & Haacke, 1994, 110쪽)했다. 부르디외가 노린 것은 일종의 콜라주를 통한 새로운 의미 생산과 게시의 효과였다. “자료와 사진, 논문의 발췌문을 분석 텍스트 속에 가져다 붙이는 일 자체가 텍스트와 자료의 위상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일상 속에서 그저 건성으로 읽히던 대상이 갑작스럽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Bourdieu,

1999/2002a, 375쪽). 한편 이 잡지는 역사학 전문지 《아날Annales》을 제외한 프랑스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외국 저자들의 기고와 번역논문이 가장 많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에릭 홉스봄, 레이몬드 윌리엄즈, 위르겐 코카, 테다 스카치폴, 노베르트 엘리아스, 카를로 긴즈부르그, 로버트 단튼, 아론 시쿠렐 등이 이 잡지의 필자로 참여했다.

《악트》는 ‘문화재화의 경제’, ‘(성, 인종, 연령, 지역, 국가 등) 사회집단과 범주의 구성’, ‘지배와 재생산 전략’, ‘교육제도’, ‘지적 실천과 연구행위’ 등의 주제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악트》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을 들자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논의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시간적인 지체를 무릅쓰면서도, 이 잡지는 시사문제를 학술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자율성을 확인하고, 공론장에 개입하는 사회과학의 시민윤리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잡지의 특집 주제 속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구체적인 예로, 1980년 “아프가니스탄”(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8년 “정치를 다시 사유하기”(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해), 1990년에는 “레닌주의의 위기”(동유럽의 탈공산화), 1996년 “저널리즘의 패권”, “작업장에서의 새로운 지배 형식”(95년 노동자 총파업), 98년 “동성애”(97년 PACS 논란), “북지국가에서 형벌국가로”, 99년 “이민의 위법행위”(국적법 논란), 2000년 “노동에서의 인포매틱스”, “세계화의 사회학”(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악트》에 실린 논문들은 대개 부르디외 사회학의 시각이나 사회사적 시각에서 주제에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잡지는 미뉴에서 쇠이유, 쇠이유에서 다시 자체 출판사로 발행처를 옮겼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다.

2) 범유럽적 서평지의 모색

부르디외는 1989년 10월, 1년여의 준비를 거친 서평 전문지 《리베르. 유럽 서평지 *Liber. Revue européenne des livres*》를 창간했다. 자유, 책 등의

어원인 라틴어에서 따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잡지는 해방을 위한 책의 힘을 믿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리베르》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서평지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먼저 특정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 전체를 하나의 장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다음으로 그러한 국제적 연대를 위해 각국의 대표적인 권위자를 이용한 대중화를 시도한 점 역시 주목할만했다. 즉 처음에 《르몽드Le Monde》, 《더 타임즈 리터러리 서플리먼트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린디체L'Indice》, 《엘 파이스El País》 등, 다섯 개 신문의 무료 부록의 형식으로 발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잡지는 유럽 지식인들 사이의 책을 통한 대화와 국제적 연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부르디외는 현실주의적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réaliste)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 리베르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이 구사된다. 첫째, 다양한 유럽 국가의 독자들에게 제각기 다른 국가의 작가, 작품, 제도에 전통에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국가적 특수성을 국제적 수준에서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한 국가의 특징을 꾸미거나, 몇몇 고정란을 통해 국가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나 분석을 제시한다. 둘째, 동일한 대상에 대한 각국별 상이한 분석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 맞서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식인’에 관한 특징을 보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국가별 고유한 전통에 따라 그 개념의 정의나 발달과정, 함의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교류를 통해 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일종의 ‘집단적 지식인’을 만드는 데 리베르의 목표가 있다(Bourdieu, 1995/2002a, 284쪽).

하지만 잡지의 정착과정이 그리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창간호 이후, 잡지가 몇 차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문들은 하나 둘씩 협력을 포기했다. 그 결과, 《리베르》는 7호(1991년 9월)부터 15호(1993년 9월)까지는 《악트》의 부록으로서만 명맥을 유지하였고, 외국에서는 《린디체》만, 그것도 20쪽의 독립된 부록으로서가 아니라, 4쪽의 간지 형식으로 발간하였

다. 콜리에(Collier, 1993)는 이 중간 단계의 실패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는다. 계간이었다가 부정기적이 된 발행주기가 기존 일간지나 주간지와 호흡을 맞추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리베르》의 잠재적인 독자군을 구성하는 이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서평 전문지들이 많았다는 점, 20쪽 정도로 분량이 너무 적고, 서평지이면서도 예술, 문학, 언어에 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내용에서도 사회학적 시각에서 상당한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 선정주의나 유행을 지양하고 시사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다보니 시의성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이나 판형, 편집상의 문제점 등이다. 잡지 내적인 문제 외에도 행정적, 조직적, 재정적 문제 역시 적지 않았다. 편집위원회 조직의 인적 구성과 내부 조정체계의 불완전에서 나온 불협화음, 무급의 자원봉사자 통신원 수십 명을 이용한 집필과 번역 체제의 난점, 그리고 처음에 공기관들(콜레주 드 프랑스, 유럽사회학연구소, EHESS, 영국문화원, EC의 문화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다가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자 불거진 재정상의 곤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난항을 겪던 《리베르》는 16호(1993년 12월)부터 다시 외국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리베르를 위한 독자모임’(Association Liber)의 결성을 통해 회비 형식의 기부금 회원을 모집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통해 발행과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현재 독일, 불가리아, 헝가리, 스웨덴, 이탈리아,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노르웨이, 스페인에서 《리베르》의 현지판을 발간하고 있다. 《리베르》는 6호부터 부르디외가 실질적인 편집책임자로, 11호부터는 공식적인 편집책임자로 활동하게 되었고, 18호(1994년 6월)부터 제목을 《리베르. 국제서평지 *Liber. Revue internationale des livres*》로 고쳤다(Bourdieu, 2002b, 85~86쪽). 이 잡지에는 노베르토 보비오, 위르겐 하버마스, 에릭 홉스봄, 자크 데리다, 장 스타로뱅스키 등, 스타급 필자들도 비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지만, 잡지의 안정성은 오히려 각 호마다 일관된 정보와 특정한 시각으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력에서 나왔다고 평가된다(Cf. Collier, 1993).

3) 사회운동과 출판운동의 결합

1993년 부르디외는 22명의 동료연구자들과 더불어 다양한 직업의 하층 계급 구성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물로서, 『세상의 비참』이라는 제목의 저작을 출간한다. 원본이 아주 작은 활자체에 거의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서, 그는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권 14년이 가져온 고통(*souffrance*)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일종의 ‘피지배계급의 집단기억’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지배계급의 다양한 지배전략,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피지배계급의 재생산 위기를 조명한 이 책은 십 수만 부의 판매부수를 올리며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부르디외의 현실 참여는 점점 활발해졌고, 공적인 발언의 횟수와 강도 역시 증가하였다.

90년대 중반 이래 부르디외의 참여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실직자(*sans-emploi*), 노숙자(*sans-abri*), 불법체류자(*sans-papier*) 등, 다양한 차원에서 — 직업, 집, 체류 자격 등 —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sans-*)’의 공적 가시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생산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범 유럽차원의 집단적인 지식인 연대와 사회운동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이 가져올 재앙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두 방향의 참여는 출판운동과 결합되어 부르디외 나름대로 새롭게 공론장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 참여는 행동과도 밀접히 이어진 것이어서, 1998년 실직자들이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의 상징 에콜 노르말(*Ecole Normale Supérieure*)을 점거했을 때 부르디외는 이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는가 하면, 1999년 10월에는 “세계의 지배자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세계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회장들의 파리 모임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1995년 겨울의 사회운동을 계기로, 부르디외는 동료연구자들과 함께 일종의 국제적 지식인 운동단체인 “행동의 이유(*Groupe Raisons d’agir*)”를 창립하였다. 이 단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항하기 위해 학문적 전문성

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집단으로, 특히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싱크 탱크들(think-ranks)과 상징투쟁을 벌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체는 1996년 가을 ‘리베르-행동의 이유(Liber-Raisons d’agir)’라는 문고본 전문 출판사 또한 설립하였다. “저항의 지적 무기들을 전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 출판사는 저렴한 문고본을 발간(각 권당 100쪽 안팎의 30~40프랑 정도 가격, 발간 당시 환율로 약 5~6천 원)했다. 책의 기획과 선정은 시사적인 문제들(신자유주의, 연금, 저널리즘, 지식인들의 무책임, 형벌제도의 오용 등등)과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의 성과를 대중화하고, 특히 미디어에 관한 정보들처럼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는,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국제적인 민중 백과사전’을 표방한 이 문고본 총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성찰과 정치행동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려는 운동가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총서를 통해 간행된 책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90년대 후반 프랑스의 사회개혁 분위기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의 미디어와 저널리스트, 미디어 지식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한 부르디외의 『텔레비전에 관하여』는 한 달이 채 못 돼 10만 부(15만 부 이상 판매), 세르주 알리미의 『새로운 경비견들』은 발간 첫 날 초판이 매진되고, 재판에 들어가 18만 부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이밖에도 부르디외의 『맞불 1, 2』, 프레데릭 로르동의 『연기금, 뻔한 계약?』, 로익 왁칸트의 『비참한 감옥』, 케이스 덕슨의 『시장의 전도사들』 등이 출간되어 상당한 판매부수를 올렸다(Cf. Crignon, 2002).

한편 부르디외의 동료연구자들인 파트릭 샤파뉴와 앙리 말레르(Henri Maler)는 1996년 미디어 비평단체인 ACRIMED(Action-critique-médias)를 창립하였다. 1999년 부르디외는 이 단체와 함께, 우파 정부가 다양한 문화계 소식과 예술가, 작가, 철학자들의 인터뷰, 수준 높은 각종 비평으로 유명한 공영라디오 방송인 France-Culture의 프로그램을 상업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였다. 이 단체는 지금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디어 비평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시민들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있다(Cf. 박진우, 2004).

4. 맺음말: 남는 문제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생애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언론인으로서의 꾸준한 실천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주목해 부르디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학적 참여관을 검토하고 그러한 참여관이 실제 부르디외의 언론활동과 정치적 개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그는 학자로서 특히 다양한 출판 미디어를 이용해 학문적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조직하고 범 유럽적 차원의 지식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식인이 자신의 학문적 권위나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연구활동과 정치적 실천을 결합시킨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해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지배의 기제를 폭로하며, 그러한 자율적인 문화생산 활동을 위협하는 외적인 권력에 비타협적으로 맞선 그의 시도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지식인과 언론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글라스 켈너의 지적처럼, “오늘날 비판적인 미디어 이론이 미디어와 문화가 어떻게 사회적 계몽과 진보의 수단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여야 한다”(Kellner, 1995, 443쪽)면, 부르디외의 참여논리와 미디어 실천은 그러한 가능성의 하나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관은 그의 사회학에 가해졌던 여러 비판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것은 부르디외가 이성과 진실에 대한 역사주의적, 구성주의적 접근과 구조적 결정론의 경향 위에서 사회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도, 어떻게 비판자들의 주장처럼, 이성이나 보편의 기준이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진보를 논할 수 있는지, 또 개인의 실천과 자유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논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것’의 역사에 대한 합리적 과학으로 무장한, ‘보편적인 것’의 정치가 필수적이며, 바로 그러한

정치를 통해서 기존의 권력구조와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변형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징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기반들을 붕괴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정치를 위해, ‘보편적인 것’의 진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학자들, 문화생산자들, 이른바 ‘국가의 왼손’인 하급 공무원과 교육자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해야 한다는 데 ‘집단적 지식인’ 개념의 핵심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부르디외의 사회학을 이른바 다양한 ‘탈근대성(postmodernity)’의 사상과 차별화 시켜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이론적 난점들, 또 더 깊은 성찰을 위한 몇몇 실제적 논점들을 제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먼저 이른바 ‘보편적인 것(l’universel)’의 의미와 가치, 형성 기제가 부르디외의 논의 속에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는 ‘보편화’를 “특수성에서의 탈피(départicularisation)”(Bourdieu, 1993, 34쪽)로 정의하고, ‘보편적인 것’을 이성, 진실, 인권, 공익, 공공 서비스, 국제주의 등과 동일시하면서, 과학, 각종 문화산물들(시, 소설, 예술작품 등등), 법과 국가 등을 그 구체적인 현실태로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령 유럽통합은 국민국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편화이며, 과학적 발전이나 예술적 성취 또한 ‘보편적인 것’의 구현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일까? 부르디외가 ‘보편적인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객관적 차원의 근거를 지니는 것인가, 아니면 상호주관적 차원의 근거를 지니는 것인가? 이를테면, 과학적 진실의 경우, ‘실재’에 기초한 객관적인 성격을 들어 보편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 때, 그것에 대한 상호주관적 합의의 존재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지구는 돈다”는 주장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의 보편성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법과 국가의 보편성은 객관적 차원과 상호주관적 차원을 분리시켜 이야기하기 어렵다. 곧 동일한 규제원칙의 적용이나 제도적인 통

일은 '더욱 광범위한 일반화'라는 형식적인 차원의 보편성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합리화'를 보장하는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상호주관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그 보편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합리화'나 '상호주관적' 합의가 때로는 강요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또 특정한 문화산물들(예컨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이나 마르셀 뒤샹의 설치미술)에 부르디외처럼 '보편적'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는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르디외가 '보편적인 것'이라는 용어를, 어떤 경우엔 긍정적으로 또 어떨 때는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점도 그 의미를 둘러싼 모호성을 가중시킨다.

각각의 장에서 보편성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기제 또한 아직까지 더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부르디외가 기초적인 밑그림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관료제의 장이나 사법 장에 대한 설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논문과 저작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한 논의를 제시한 바 있는 과학 장의 경우에도 이견은 폭넓게 존재한다. 한 예로, 최근 '과학의 사회적 구성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과학 장의 자율성이 과학적 성취와 이성의 진보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부르디외의 논리에 강력히 맞선다(Cf. Latour, 1995). 즉 연구가 사회세계의 여러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을수록, 즉 이른바 과학 장이 자율적일수록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연구의 현실을 잘 모르는 데 나온 잘못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라투르에 따르면, 과학은 오히려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는 가운데 구성되는 것이다.¹³⁾ 만일 라투르의 주장이 옳다면, 장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보편적

13) 라투르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연구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과학의 순수하고 단단한 핵이 맥락에 둘러싸여 있는 식의 모델이 아니라, 도구화(instrumentation), 자율화(autonomisation), 동맹(alliances), 연출(mise en scène), 결합체와 복합체(liens et liants) 등이 서로 겹쳐져 있는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결합체와 복합체)은 도구, 조사, 실험 등과 같은 연구의 경험적인 축(도구화), 과학

인 것'의 발전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학적 참여라는 부르디외의 논리는 그 성립근거를 잃게 된다. 또 부르디외가 '이성의 간지'로 보는, 역사 속에서 과학적 발견의 진보가 지니는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의미 역시 재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이나 국가, 법제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관은 자신이 제시한 장이론의 개념과 논리에 철저하게 맞추어 전개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집단적 지식인'에 대한 강조에는 독창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제의 평가(Cf. Mauger, 1995)처럼 사르트르와 푸코의 종합으로 일컬어질 수 있을지는 다소 미심쩍다. 추론과정이나 이용되는 개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지식인의 모순적 위치에 대한 논의나 정치적 개입의 사명에 관한 부르디외의 논의는 사르트르의 그것과 매우 가깝다고 여겨진다(Cf. Sartre, 1972). 이 점에서 푸코의 '특수한 지식인'론이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에 대해 만들어낸 단절에 비해, 부르디외의 논의는 사르트르 논의의 사회학적 변종처럼 읽히는 것이

자 공동체(자율화), 국가, 기업, 군 등 다른 제도들과의 교섭(동맹), 공중과의 관계나 이데올로기(연출)의 점점 속에서 정교화된다. 또 과학적 활동과 전략적 사고는 서로 배타적이기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한다. 이처럼 라투르는 부르디외와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세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분석의 도구와 수준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르디외처럼 장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세계를 볼 경우, 그것은 장 안에 고유한 내기물과 일루시오(illusio), 자본 등에 의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가령 관료나 기업가는 과학 장에 이질적인 외부세력이 된다. 하지만 라투르처럼 과학세계를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수준에서 본다면, 과학자는 다양한 사람들(관료, 기업가, 환경운동가 등등)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지적 기획을 실현하는 전략적 주체로 나타난다. 과학세계에 대한 새로운 표상과 인식방법을 통해 라투르는 부르디외가 상징하는 '장의 분화와 자율화로서의 근대화'라는 가정 자체를 부인하며, 심지어 "우리는 결코 근대적이었던 적이 없었다"(Cf. Latour, 1991)고 주장한다. 물론 부르디외가 라투르를 위시한 과학사회학의 이른바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다(Bourdieu, 1997b; 2001, pp.41~66; Cf. Gingras, 1995). 하지만 문제는 어느 쪽의 논의가 더 진실인지를 가릴 수 있을만한 합의된 척도가 아직까지 없다는 데 있을 것이다.

다. 이는 그가 문화생산 장의 역사적 유산이자 지식인 참여의 기원이 된 19세기의 대작가들(볼테르, 에밀 졸라)을 현재에도 여전히 되살려야 할 전통이자 전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념이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절성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르디외가 지양하고자 했던 탈근대성의 사상과 만나게 된다. 사실 부르디외는 탈근대성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것을 현실과 괴리된 “캠퍼스 급진주의”, “비이성적 상대주의”, “정치적 허무주의”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탈근대성의 사상이 실질적으로 부르디외 사회학 못지않은 영향력을 학계와 사회 전반에 행사하고 있으며, 하나의 경합하는 담론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에 관해서도 부르디외식 논의와는 상당히 다른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각기 탈근대성의 철학과 사회학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장 프랑수아 료타르(Jean-François Lyotard)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논의는 시사적이다.

먼저 료타르는 선진사회에서의 지식생산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근대적) 지식인의 종언’을 선고한다. 그에 따르면, 변동의 핵심은 바로 지식인의 지적 권위 및 행동의 근거가 되었던 보편적 이념(예컨대 해방)이 20세기 중반 이후 몰락했다는 데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근대적 지식의 정당성 근거로 기능했던 거대서사가 퇴조하고 수행성 원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주체(예컨대 프롤레타리아) 또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학자, 작가, 예술가 등 각 직업집단에는 고유한 과제와 제한된 책임이 주어져 있을 따름이며, 소외된 자의 처지에 관심을 두고 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성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시민적인 책임성이다. 또 료타르에 의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지적 책임성은 보편주의와 단순논리, 통일성과 명증성, 합의와 총체화를 거부하고 불일치와 논쟁, 차이를 복돋움으로써, 오늘날 일상생활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복잡성의 증대과정에 인류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Cf. 강수택, 2001, 7장).

한편 바우만은 근대국가의 성립기에 권력과 결합해 입법자적 기능을 수행했던 지식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갔는지를 뒤쫓는다. 근대성의 시기에 지식인은 관료제와 정치공학을 발전시킨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자율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탈근대성으로의 전환기에 지식인은 설계자와 입법자로서의 야망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없게 되었다. 바우만이 특히 주목하는 ‘탈근대적 조건’은 바로 시장이 중심기제가 되는 소비사회와 소비문화이다. 여기에는 입법자로서의 지식인을 위한 어떤 역할도 남아있지 않다. 다른 이들처럼 지식인도 시장의 힘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통제력의 확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은 진리, 정의, 혹은 취향의 보편성이라는 가정과 그에 기초한 입법적 야망을 포기하고,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해석자로서의 지식인에게서는 정확한 의미 해석과 분별이 요구되며, 해석을 이끌고 타당성을 제공하는 규칙들을 보증할 과제가 주어진다. 바우만에 의하면, 지식인은 해석자 역할을 통해 의미공동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고, 상품화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도구적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며, 의미창조 및 소통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Cf. 강수택, 1991, 8장).

이와 같은 탈근대적 관점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관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철저하게 ‘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¹⁴⁾ 특히 그것이 ‘보편적인 것’의 개념화를 시도하며, ‘계몽’과 ‘과학’과 ‘연대’의 정치에 기초해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탈근대성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르디외의 ‘근대적 정치’가 드러내는 여러 내적인 문제점들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우선 ‘계몽의 정치’에 내포된 일종의 순진한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부르디외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인식의 획득이 행위자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스피노자

14) 이 점에서 부르디외가 자신의 지식인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1989년의 논문 제목이 “보편의 조합주의: 근대세계에서 지식인의 역할”(Bourdieu, 1989)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식의 가정에 기대고 있다(Corcuff, 2000, 108~110쪽). 하지만 사회적 진실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증가가 곧 해방의 효과를 낳고, 주체의 더 나은 실천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사실 언제나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부브레스가 되풀이해서 지적하듯, “비판 사회학의 진실들은 이해당사자들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냉소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내면화될 수도 있다. (……) 불행하게도 사고 따로, 행동 따로 또한 하나의 하비투스가 될 수 있으며, 특별히 근대적인 하비투스를 구성할 수 있다”(Bouveresse, 2003, 73~74쪽). 그렇다면 계몽의 정치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르디외의 계몽의 정치는 ‘과학의 정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의 과학이란, 부르디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진실에 대한 과학인 사회학, 특별히 ‘자기 식의 사회학’을 가리킨다. 그러한 과학의 정치 역시 다양한 난점들을 빚어낸다. 사회학은 정치적 결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이용하는 추론과 논거제시, 증명의 과정이다. 그러한 사회학을 이용해 얻어낸 정치적 결론은 과연 다른 방법에 비해 더 최선의 것일까? 예컨대, 우리는 사회학을 거치지 않고도 일상적 감수성이나 상식, 윤리적 신념 등에 의거해 특정한 정치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나 경제적 불평등에 자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용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사회학을 거치는 개입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으로서 사회학이 올바른 정치전략을 세우도록 해주고, 그것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는 하나, 상식이나 윤리적 신념에 바탕을 둔 정치 또한 사회학의 전파와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도 효율적인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접근을 두고 실질적인 우열을 따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결론이 나온다면, 논리전개 과정이 다르더라도 정치적으로 연대해야 하는 것일까? 반대로 나름대로의 엄밀한 사회학적 추론이 부르디외와 다른 결론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사회과학의 현상태와 관련해 매우 문제적인 상황을 낳는

다. 즉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은 이제껏 단일한 패러다임이나 지배적 패러다임을 가져본 적이 없다. 서로 이질적인 과학성의 원칙과 기준들, 해석을 위에 세워진 다양한 패러다임의 경쟁이 사회과학의 역사를 특징지어왔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부르디외와 라투르의 과학사회학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이 때로는 상충되는 정치적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는 A라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나온 B라는 주장과 C라는 시각에서 나온 D라는 주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 B와 D의 평화로운 공존을 인정해야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B와 D는 서로 자신이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A와 C의 진실성 정도를 가릴만한 공통된 잣대가 존재하는가?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될 수 있는가? 사회과학이 결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통일될 수 없다면, 결국 이러한 딜레마는 언제나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론장에서 다양한 사회학적 담론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학의 정치는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¹⁵⁾

- 15) 실제 현실정치에서 부르디외는 사회학적 추론을 거치지 않았으나, 자신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극좌파)과는 연대한 반면, (부르디외의 사회학과는) 다른 사회학 이론과 분석들을 거쳐 다른 정치적 결론을 얻은 (우파) 지식인 집단에 대해서는 격렬한 비판과 공격을 가했다. 1995년 프랑스 우파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식인들의 논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Cf. Duval, J. et al., 1998) 부르디외가 자신의 사회학만이 과학이라는 독단과 오만 위에서 있다는 반비판을 불러일으킨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1977년에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사회세계에 관한 많은 담론의 지평에 아직도 뚜렷이 나타나있는 스탈린주의는 일종의 과학주의적 유토피아주의(utopisme scientiste)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과학,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면서도 이미 가장 단순한 표현인 슬로건과 명명어로 환원된 사회과학의 힘에 대한 병적인 신념에 기초해있다. 사회과학의 교훈들 가운데 하나는 유일한 사회이론에 의해 방향 지워진 모든 행동의 한계들이다. 과학주의는 언제나 테러리즘의 잠재성을 포함한다. 사회과학은 진보하면서 자신의 한계들을 배웠다”(Bourdieu, 1977/2002a, p.103).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르디외가 이후에 내세웠던 ‘사회학적이며 현실적인 유토피아주의’는 ‘사회학주의’,

이러한 맥락에서 ‘연대의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심각하게 제기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보편적인 것’의 이상을 공유하며 그것의 실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는 ‘집단적 지식인’이란 정말 현실성이 있는 발상인가? 전문분야가 다르고,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인들 사이에 연대의 이상은 너무나 멀고 경쟁과 분열의 현실은 너무도 가깝지 않은가? 물론 부르디외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이해관계를 잘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수호하려는 노력에 맞추어진 조합주의”(Bourdieu, 1989, 109쪽)를 주창하는 정도 이상의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다.

이 모든 난점들은 학자와 정치 사이의 긴장이 그 어떤 이론 속에서도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더욱이 ‘탈근대적 조건’이 이야기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식인이 독단론이나 전체주의적 억압에 빠져들지 않고, 더 민주적이고 다원적이며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명쾌한 확신을 갖기란 어렵다. 하지만 정치적 냉소주의나 수수방관을 넘어서, 지식인이 현실의 개선을 위해 어떤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론과 미디어 실천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이정표의 역할이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아니라, 단순히 가능한 어떤 좁은 길에 대한 지시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사회학적 테러리즘’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사회과학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며, 사회과학의 힘에 대한 과도한 신념으로부터 벗어나 지적 테러리즘의 잠재성으로부터 사회과학을 해방하는 작업은, 성찰성을 그토록 강조한 부르디외에게도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제였던 듯하다.

◆ 참고문헌

- 강수택 (2001).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서울: 삼인.
- 박진우 (2004). 프랑스의 미디어 비평단체. 박진우 외, 『세계의 미디어 비평』 (37~79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상길 (2004). 피에르 부르디외: 저널리즘의 장과 민주주의. 박진우 외, 『세계의 미디어 비평』(221~244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Bourdieu, P. (1982). *Leçon sur la leçon*. Paris: Minuit.
- _____ (1986). La science et l'actualité.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61, 2~3.
- _____ (1987). *Choses dites*. Paris: Minuit.
- _____ (1989). The Corporatism of the Universal: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the modern world. *Telos*, 81, 99~110.
- _____ (1991). The Peculiar history of scientifique reason. *Sociological Forum*, 6(1), 3~26.
- _____ (1992a). *Réponses. Pour une anthropologie réflexive*. Paris: Seuil.
- _____ (1992b). *Les règles de l'art. Genèse et structure du champ littéraire*. Paris: Seuil.
- _____ (1993). L'imromptu de Bruxelles. *Cahiers de l'Ecol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Religieuses*, 14, 33~48.
- _____ (1994). *Raisons pratiques. Sur la théorie de l'action*. Paris: Seuil.
- _____ (1997a). Défataliser le monde (Entretien avec Sylvain Bourmeau). *Les Inrockuptibles*. 99, 23~29.
- _____ (1997b). *Les usages sociaux de la science*. Paris: INRA.
- _____ (1998). *La domination masculine*. Paris; Seuil.
- _____ (2000). *Propos sur le champ politique*. Lyon: PUL.
- _____ (2001). *Science de la science et réflexivité*. Paris: Raisons d'agir.
- _____ (2002a). *Interventions, 1961-2001. Sciences sociales et action politique*. Marseilles: Agone.
- _____ (2002b). Sur l'esprit de la recherche (Entretien avec Yvette Delsaut). In Delsaut, Y. & Rivière, M-C. *Bibliographie des travaux de Pierre Bourdieu*. (pp.175~239) Paris: Le Temps des Cerises.

- _____ (2004). *Esquisse pour une auto-analyse*. Paris: Raison d'Agir.
- Bourdieu, P. & Haacke, H. (1994). *Libre-échange*. Paris: Seuil/Les presses du réel.
- Bouveresse, J. (2003). *Bourdieu, savant & politique*. Marseille: Agone.
- Champagne, P. (2004). Making the People Speak: The Use of Public Opinion Polls in Democracy. *Constellations*. 11(1), 61~75.
- Collier, P. (1993). Liber: liberty and literature. *French Cultural Studies*. 12, 291~304.
- Corcuff, Ph. (2000). *Philosophie politique*. Paris: Nathan.
- Crignon, A. (2002, January). La «fureur légitime». *Le Nouvel Observateur*. 50.
- Duval, J. et al. (1998). *Le <décembre> des intellectuels français*. Paris: Liber-Raisons d'agir.
- Foucault, M. (1972/1994). Les intellectuels et le pouvoir. *Dits et écrits 1954~1988*. Vol. II. Paris: Gallimard, pp. 306~315.
- _____ (1977/1994). Entretien avec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1954~1988*. Vol. III. Paris: Gallimard, pp. 140~160.
- Gingras, Y. (1995). Un air de radicalisme. Sur quelques tendances récentes en sociologi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08, 3~17.
- Gros, F. (1994). Foucault et la fonction de l'intellectuel. *La Pensée*, 299, 79~86.
- Habermas, J. (1992). Further Reflections on the Public Sphere.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pp.421~461). Cambridge: The MIT Press.
- Kellner, D. (1995). Intellectuals and new technologies. *Media, Culture & Society*. 17, 427~448.
- Latour, B. (1994).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étrique*. Paris: La Découverte.
- _____ (1995). *Le métier de chercheur: regard d'un anthropologue*. Paris: INRA.
- Martel, F. (1998). Analyse d'un 'revirement politique'. *Magazine littéraire*. 369, 68.

- Mauger, G. (1995). L'engagement sociologique. *Critique*, 579/580, 674~695.
- Poupeau, F. & Discepolo, T. (2004). Scholarship with Commitment: On the Political Engagement of Pierre Bourdieu. *Constellations*. 11(1), 76~96.
- Sartre, J-P. (1972). *Playdoyer pour les intellectuels*. Paris: Gallimard.
- Wacquant, L. (1993). Bourdieu in America. In C. Calhoun, E. LiPuma & M. Postone(Eds.), *Bourdieu: Critical perspectives*(pp.235~262).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2). The Sociological Life of Pierre Bourdieu. *International Sociology*. 17(4), 549~556.
- _____ (2004). Pointers on Pierre Bourdieu and Democratic Politics. *Constellations*. 11(1), 3~15.

(최초 투고 2005. 3. 1, 최종원고 제출일 2005. 4. 12)

On Pierre Bourdieu's Sociological Engagement and Media Practices

Sang-Gil Lee

Assistant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and evaluate the sociological engagement and media practices of an eminent French sociologist Pierre Bourdieu.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 presented some characteristics of Bourdieu's view on the sociological engagement. In the second part, I also examined Bourdieu's alternative media strategies(*ARSS*, *Liber*, *Raisons d'agir*) which were designed to intervene effectively in the academy and public sphere of French society. For Bourdieu, the sociological engagement can be conceived and legitimized as follows: first, the talents of the ensemble of 'specific intellectuals' in Foucauldian sense should be combined to constitute a kind of 'large collective of intellectuals'. Second, this 'collective of intellectuals' should make 'corporatist' efforts to improve the autonomy of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which is the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conquest of 'the universal'. Bourdieu tried to realize his logic of sociological engagement through all his intellectual works, media activities and political intervention. In appreciating positively the consistency and originality of Bourdieu's theory and practice of engagement, I proposed to reconsider some limits of his 'modern' politics - enlightenment, science, collectivity - in today's 'postmodern condition'.

Keywords: Pierre Bourdieu, Sociological engagement, Media practices